청소년불자 73% "업보 믿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청소년 불자화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청소년불자의 신행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교 거점사찰 또는 거점지역을 지정해 청소년 포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청소년 포교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행활동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의 신행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파라미타 청소년 활동과 각종 신행프로그램의 거발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불교적 가치를 내재한 청소년 교육용 교재의 개발과 활용, 보급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다.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불교의 지역적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8.9%) 광주(11.7%) 인천(13.6%) 강원(17.3%) 서울(19.2%) 지역이 전통적 불교 강세 지역인 울산(58.5%) 제주(44.4%) 부산(42.6%) 경남(38.0%) 대전(35.4%) 등의 청소년 불교 인구 비율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는 95년 통계청 조사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같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청소년포교, 특히 수도권의 청소년 포교에 종단적 힘을 투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 신앙하는 이유에 대해 53.4%의 청소년불자가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 불교를 종교로 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천주교는 33.1%, 개신교는 14.0%만이 가족의 종교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부모의 권유와 스스로 판단해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행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청소년불자의 39.8%가 10년 이상의 신행경력을 갖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신행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불자는 21.1%였다.

조계종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내용과 의미

개신교 26.6%-불교 26.2%-천주교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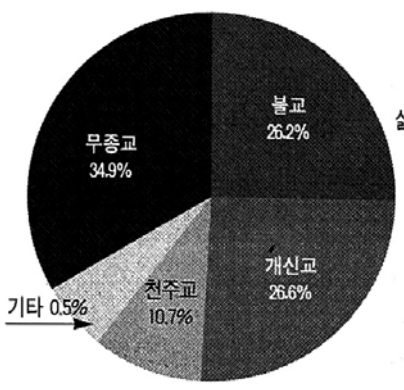
가족영향 불교선택…지역편중 심해

"정신적 안정위해 불교믿는다"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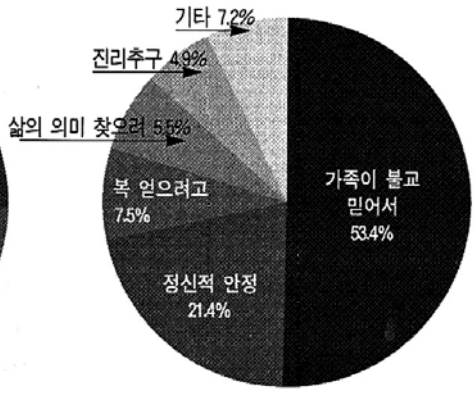
◇지역별 청소년 종교비율(%)

	거주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불교	19.2	42.6	13.6	33.7	11.7	35.4	58.5	22.1	17.3	27.4	24.0	8.9	28.0	31.8	38.0	44.6	26.2
개신교	33.7	14.4	34.6	15.8	32.0	12.2	7.7	33.5	24.0	33.9	20.8	36.3	35.5	21.6	10.5	8.9	26.6
천주교	12.5	8.8	16.0	10.9	12.6	12.2	4.6	12.1	9.6	5.6	12.5	7.4	8.1	10.2	6.5	12.5	10.6
무종교	32.9	32.4	35.8	38.0	35.9	37.8	26.2	31.5	49.0	33.1	42.7	41.5	28.0	35.2	43.0	33.9	34.9

◇청소년의 종교비율



◇불교신앙 이유



청소년불자들의 나이가 아직 10대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어린이포교 활성화없이 청소년포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정신적 안정을 위해 믿는다(22.2%)고 답했으며,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신과 같은 절대자에 의존하는 게 싫어서(36.9%)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청소년 교화 및 선도(47.7%)를 1순위로 꼽아 청소년 포교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물음에 무종교 청소년 가운데 15.2%가 불교를, 14.8%가 천주교를, 6.7%%가 개신교를 꼽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거나 잠재적 불자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천주교(62.8%), 개신교(55.2%), 불교(45.8%)의 순으로 자기종교가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현상은 타종교에 비해 청소년불자의 자부심이 저조함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불교가 대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지난 해의 조계종사태 등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는 지적이다.

사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의 청소년들이 사찰을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늑하고 편안하다(24.4%), 답답하고 무섭다(12.2%), 아무런 느낌도 없다(11.2%)고 답했다.

종교적 명제에 대한 호응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4%가 업보를 믿는다고 답했으며, 윤회에 대해서도 48.3%가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20.3%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불교적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종 여부와 개종 전의 종교에 관한 질문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개신교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불교의 경우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개종한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청소년이라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방식의 조사를 펼쳐, 앞으로 청소년 포교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됨과 동시에 21세기 청소년 포교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목어

청문회를 보고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무능 탓인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은 손이 방해한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급 옷 로비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역시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막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미덥지 않던 터라 국회 청문회에서만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애초부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같은 것은 없었던 여권에서는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고 내심으로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찰도 검찰도 권력에 아부하느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기 일쑤여서 신뢰받지 못하는 판에 국회에서조차 진실을 밝혀 낼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못해 캄캄할 뿐이다.

진실이 은폐된 채 청문회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왜 자기가 받은 훈장마저 국가에 반납하고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말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불행이요 비극이다. 이 나라 이 정부에 얼마나 실망했으면 국가에서 준 훈장이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현정부도 불행의 씨앗을 잉태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조차 밝히지 못한채 지나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고 보면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자못 걱정스럽다.

청문회에 불려나온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간에 우리 불자 역시 지금 그들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역사를 만들고 업을 함께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불교인들도 오늘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잡보장경〉에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곳을 살핀다"고 하였으니 진실이 은폐되는 시대일수록 불자들의 밝은 지혜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성 열 (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

기묘년 하안거 해제법어

"산하가 다 내집인데 어디가서 내집 찾으리"

혜암스님(조계종 종정)

頭上帽子重七斤 脚下地獄苦萬端
糞迦彌陀飮砒霜 迦葉阿難喫火藥
包塞虛空絶影形 能含萬象體常淸
目前眞景誰能量 雲捲靑天秋月明
大地山河是我家 更於何處覓鄕家
晃山忘道狂迷客 終日行行不到家
會靡
一二三四五六七 九秋黃菊滿空飛
喝 一喝

머리 위의 모자는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 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비상을 마시고 가섭과 아난은
화약을 먹는다.
허공을 꽉 싸안고 그림자와 형체를 뛰어난 온갖 형상 머금었어도 몸은 항상 깨끗하다.
눈 앞의 참 경계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
구름 걷힌 맑은 하늘에 가을달이 밝아라
대지산하가 바로 다 내 집인데 새삼 어디 가서 고향 내 집 찾으리.
산을 보다가 길을 잃고 미쳐 헤매는 사람 한 종일 가도가도 집에는 못 가리라.
알겠는가?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이여 가을의 단풍은 하늘 가득 날으네
아악-

"치우침 가운데 바름이요 바른 가운데 치우침"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盤走珠珠走盤 偏中正正中偏
羚羊掛角無蹤迹 獵狗過林空踞蹲
喝

소반에서 구슬을 굴리고
구슬이 소반에서 소반에서 구르니
치우침 가운데 바름이요
바른 가운데 치우침이로다.
산양이 뿔을 거니
자취가 없거늘
사냥개는 숲을 돌며
공연히 서성대도다.
악-

"청천백운 오고가지만 운수납승 자취 없도다"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

靑天白雲自去來 雲水衲僧本無跡
白雲本無隨根地 衲僧本無亦如然

청천백운이 스스로 오고 가지만
운수납승은 본래 자취가 없도다.
백운은 본래 따를 근지가 없고
납승도 본래 없어서 또한 그러하도다.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니 새벽에 가라하네"

법전스님(해인총림 방장)

大死底人還却活 不許夜行投明到
陳州人出許州門 翁翁八十重年少

크게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니
밤에 다니지 말고 새벽에 가라고 하네.
진주 땅 사람이 허주 땅에서 나오니
늙은이 팔십세에 다시 소년이 되었네.

"새울음과 벌레소리 다 마음 전하는 비결이요"

보성스님(조계총림 방장)

解制結制又解制 雪上加霜又加雪
日到天心照大地 雪消霜盡百草春
해제하고 결제하고 또 해제하니
눈 위에 서리를 덮고 서리 위에 눈을 덮음이로다.
해가 중천에 떠서 대지를 비추니
눈이 사라지고 서리는 녹아서 모든 풀이 봄빛을 띠었구나.

鳥語蟲聲 總是傳心之訣
花映草色 無非見道之文
새울음과 벌레소리는 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색깔과 풀빛은 도를 보는 글 아님이 없도다

無邊風月眼中眼 不盡乾坤燈外燈
柳暗花明千萬戶 敲門處處有人應
가없는 풍월이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 없는 하늘땅은 등 밖에 등이라
버들은 어둡고 꽃은 밝은 만호장안에 어느 집 문을 두드린들 주인 있어 대답하지 않으리

佛祖不是妄語人 不信衆生誠難救
經舟任風歸去處 喜逸古人說往事
부처님과 조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중생은 구제하기 어렵네
가벼운 배를 바람에 맡겨 돌아간 곳에서
즐거이 옛 친구를 만나 지난 일 이야기하리.

佛祖不曾會 分明百草頭
부처와 조사도 일찍이 알지도 못했지만
모든 풀 끝에 분명히 보이네

불국정토 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

관정경에 관정이란 왕이 즉위하거나 전법(傳法) 수계(受戒) 할 때 또는 수도자(修道者)가 일정한 계위(階位)에 오를 때 사해(동, 서, 남, 북의 바다)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하여 주는 불사입니다.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전륜성왕이나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 공덕을 짓게 됨으로 현세에는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며, 복덕이 구족하여 빈곤하지 아니하며, 뜻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희유하고 성스러운 불사이며, 일생중 단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모든 불자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대덕문화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소 1999년 9월7일(음7월28일) 11시
주최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추진위원회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 중정협의회 · 불교TV · 청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노인복지회 · 삼론법보신문사

⊙ 제 2회 관정수기 대법회 임원

대 법 주 이 대 산 대종사 (대한불교 종정 협의회장)
관정증사 전석봉 대화상 진지마 대화상 신각화 대화상 박팔봉 대화상 김혜승 대화상 이신수 대화상 사혜광 대화상
마정증사 김법진 대화상 최대운 대화상 류정봉 대화상 김법광 대화상 노우담 대화상 이만혜 대화상 이정수 대화상
연비법사 김오봉 대화상 임인봉 대화상 조법진 대화상 이종덕 대화상 최상순 대화상 서혜공 대화상 이용석 대화상

⊙ 고문 · 자문위원

고 문 강영순(향운) 이의동(원인) 배사옥(석왕) 도월천(대월) 김진오(해운) 윤원주(진여성) 방우순(대명화) 송동수(마명) 박현주(도안) 이연옥(대도심) 김점주(법장화) 이기남(설운) 신청월(청월) 강숙조(지화) 정성기(정각)
자문위원 장정배(혜일) 최천안(보현) 이분임(지인) 이지형(동림) 이종진(대원심) 성영옥(일심화) 구순옥(보덕행) 류기복(원화) 김기열(공덕심) 신순자(마하) 한상옥(선혜) 박순애(대정심) 김선조(법화) 김영숙(법륜화) 강선구(어옥순) 박명자

⊙ 대회본부

대 회 장 이 혜 공 스님 (혜명정사 회주)
부대회장 채 법 원 스님 (원진암 주지)

봉행위원회 위원장 김진봉 스님 (연화원 주지) / 부위원장 박상준 스님 (천보사 주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택봉 스님 (지장암 주지) / 부위원장 정법작 스님 (관음사 회주)
준비위원회 위원장 배향담 스님 (동림사 주지) / 부위원장 주도경 스님 (무량사 주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스님 (보림사 주지) / 부위원장 조지경 스님 (천용사 주지)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청봉 스님 (옥예원 원장) / 부위원장 김지겸 스님 (청국사 주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해암 스님 (무학사 주지) / 부위원장 허지호 스님 (태고정사주지)
문화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스님 (연화사 주지) / 부위원장 구본암 스님 (불도사 주지)
법요위원회 위원장 윤지운 스님 (우암정사 법사) / 부위원장 서혜공 스님 (화엄선원 원장)
동원위원회 위원장 이지해 스님 (용화선원 원장) / 부위원장 유지도 스님 (보안사 주지)
호법위원회 위원장 이지광 스님 (삼룡사 주지) / 부위원장 류의완 스님 (성불사 주지)
예경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스님 (청용사주지) / 부위원장 장묘안 스님 (보현사 주지)
지도위원회 위원장 정대안 스님 (안덕사 주지) / 부위원장 김달봉 스님 (동자암 주지)